

민간단체의 환경친화적인 친수활동



김진홍 ▶▶
중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jnhkim@cau.ac.kr

1. 머리말

최근 들어 민간단체가 주체가 되어 환경친화적인 친수활동이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하천의 일정 구간을 정하여 하천정화 활동, 불법행위 감시 활동, 친환경 농업 및 친환경제품 사용, 수질개선 및 환경생태 문화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다. 이들 활동은 각 지역의 크고 작은 하천에 대한 수질보전 운동의 연장선 상에서 발전되었거나 하천을 하나의 자연생태 공간으로 보고 그 공간이 복개되거나 콘크리트로 뒤덮인 반생명 공간이 되는 것을 저지하는 한편, 이를 다시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친수활동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들어 환경·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하천보전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하천이용 계획(도로, 주차장, 복개 등)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여론을 형성하여 이를 저지하고 올바른 하천보전 계획을 제시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정부의 댐 건설 같은 수자원 개발정책의 문제점을 사회화하고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여 백지화시키는 등 활발한 활동들을 전개하였다. 하천보전 운동은 90년대 말을 지나면서 급속하게 성장하였으며, 주요 환경운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하천보전 활동의 활성화와 급속 성장에 비해 프로그램은 발전하지 못했으며 일회성으로 그치거나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이 반복되면서 활동이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되지 못하였다. 또 활동의 성과들과 경험이 공유되지 못하고 정보들이 제공되지 않아 지역의 경우 비슷한 이슈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위치에 있는 하천친수 활동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풀뿌리 운동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시민단체들만의 활동으로 국한되는 등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고에서는 민간단체의 환경친화적인 친수활동의 현황과 한계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2. 환경친화적인 친수활동 현황

시민단체의 주요 활동은 하천의 환경기능을 이, 치수기능과 함께 고려하여 하천을 정비하고, 생태서식 공간으로서 하천을 되살려내며,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친수공간으로서의 하천을 조성하고, 사람들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주는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하천, 도시에 자연을 회복시켜 나가기 위한 녹지 축으로서의 하천을 조성해 나가자는 운동이다.

환경친화적인 친수활동은 각 유역별로 많은 민간단체에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들 친수 활동은 각 지역 하천의 현황과 현안에 따라 다양하기는 하지만, 크게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2.1 수량 및 수질 보전 활동

하천의 물을 맑게 하고 보전하는 활동으로서, 유역의 생활하수나 농, 축산폐수 또는 공장폐수 등이 하천으로 흘러들어 오염되고 있는 곳을 조사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 하천의 건천화 문제 제기, 하천의 자정능력 확충 요구 등이 이에 포함된다. 진행된 주요 활동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하천 살리기 시민환경감시 운동

하천 살리기 시민환경감시 운동은 시민들이 주요 생활영역에서 자기환경 평가를 위한 리스트를 만들어 생활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평가하여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으로 바꾸어나가는 운동이다. 맑은 물 지키기 사례로는 중앙 단체의 맑은 물 지키기 운동본부에서부터 소양강 맑은 물 지키기 운동과 섬강 맑은 물 지키기 운동 등 지자체의 단체들이 있다.

2) 환경감시(모니터)활동

지역주민들이 지역환경을 위하여 모니터 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행정기관의 지도단속과 달리 지역주민 스스로의 환경오염의 원인과 결과를 찾아냄으로써 보다 주체적으로 하천보전 운동을 할 수 있다. 보통 학생들과 함께 하천을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많이 진행한다.

2.2 하천환경, 생태 활동

하천환경을 보전하고 생태 건강성을 강조하는 활동으로서, 자연형 하천 조성 운동, 하천환경 지도 만들기, 복개 반대 운동 등이 이에 포함된다.

1) 자연형 하천 조성 운동

양재천 자연형 하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수원천의 자연형 하천 조성, 무심천 자연하천 복원(큰크리크 구조물 제거), 도림천 살리기, 안양천 살리기, 온천천(부산) 살리기 운동 등의 많은 사례가 있다. 하천이 지닌 본래의 자연성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하천을 조성하자는 운동이다.

2) 하천환경 지도 만들기

하천환경 지도 만들기는 초기에는 하천의 수질오염 현황 및 오염원을 지도상에 표시해서 하천오염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하천오염지를 시작으로, 점차 생태 현황들을 포함하는 생태지도로 확산되었다. 하천환경 지도는 제작 단계에서 많은 자원 활동가들이 필요하며 따라서 교육적인 성과도 있다. 하천환경 지도 만들기를 통해 제작된 지도는 하천의 수질오염을 교육·홍보하거나 오염배출 시설의 위치를 쉽게 알릴 수 있어서, 하천환경 감시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게 하는 귀중한 자료이기도 하다.



그림 1. 환경감시 활동 (출처; www.eco.or.kr, 연합뉴스, 2005)

3) 복개 반대 운동

수원천되살리기시민운동(1995-1996)이 대표적 사례이며, 그 후 도림천(서울)과 야담천(분당) 등 복개가 진행되는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하천 위를 콘크리트 등으로 덮는 하천의 복개는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고, 불법 폐수의 무단방류로 인한 하천오염을 심화시키며, 유수능력을 감소시켜 홍수의 위험이 있다. 하천의 사망선고라고 불리는 복개를 반대하는 것은 하천이 단순한 물의 통로가 아니고, 생태적 기능은 물론 친수기능과 경관기능을 통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자연임을 시민에게 알리고 있다.

2.3 하천생태, 문화 활동

하천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문화적인 운동의 전개이다. 생활공간으로서의 하천에 자연스럽게 배어났던 하천 문화를 찾아서 새로운 시민문화 운동으로 펼쳐나가자는 것이다. 이는 하천에 대한 시민들의 애정과 관심을 모아주고, 공동체의식을 형성시키므로써 하천 살리기 운동이 지속적이고 깊이 있게 주민들의 삶으로 자리 잡는데 필요하다.

1) 하천생태 탐사, 하천생태 기행

하천운동을 펼치는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보편적인 시민프로그램으로 하천생태 탐사 또는 하천생태 기행 등은 하천 및 하천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하천의 생태(식생, 어류, 수서곤충, 조류 등)을 조사하여 하천의 중요성과 하천오염의 실태를 깨닫는 체험 활동이다.

2) 하천 문화제

하천 복원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인근 하천을 살리기 위한 주민들의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행사이다. 도림천 영상제, 온천천 시민축제와 중랑천, 안성천 생명 축제의 사례가 있다. 하천 문화제는 하천을 생태문화 공간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하천에 대한 주민들의 애정과 관심을 불어넣어 준다. 하천변 우리꽃 심기, 나무 심기, 하천환경 음악제, 하천환경 영화제 등의 프로그램 사례도 있다.

2.4 시민단체의 주요 활동 사례

유역별로 수많은 시민단체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중, 주요 단체의 활동을 소개한다.

1) 분당환경시민의 모임

분당환경시민의 모임에서는 탄천유역 보전을 위하여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 풀뿌리단체 등이 연대하여 탄천 유역 파괴를 감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을 하며, 지역 주민들의 유역보전에 대한 이해를 높여, 건전한 유역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활동한다. 주요 활동으로, 우/오수관 탐사, 하천복개 반대 운동, 탄천살리기범시민연대 참여, 탄천 NGO네트워킹 구성 등이다. 하천환경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환경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탄천(숯내)지킴이 청소년단은 지속적으로 탄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



그림 2. 하천생태 탐사 (출처:www.newriver.or.kr/)



그림 3. 분당환경시민모임의 친수활동 (출처;www.bandi.or.kr)

한 조사 및 캠페인 활동과 그리고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2) 건강한 도림천을 만드는 주민모임

도림천 주민모임에서 실시하는 친수 활동은 크게 도림천 생태학교, 도림천 탐사단, 환경 기자반, 도림천 지킴이, 도림천 산돌립, 친수공간 조성활동, 하천 생태 환경조사, 하천사랑 빗물사랑 및 물절약 프로젝트 등이 있다. 그중, 친수공간 조성활동으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해왔다.

○ 도림천 영상제

- 1999년 이후 매년 7월 개최
- 3회부터 도림천 영화제에서 도림천영상제로 이름변경
- 참여 : 지역주민 1,000여명
- 주요 내용 :
 - 지역주민들의 작품공모 및 시상(초중고/대학/일반부문 20개 작품접수)
 - 신림9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 영상제작 강좌 진행
 - 가족영화 상영
 - 지역주민 공연
 - 페이스 페인팅, 환경사진전, 매직풍선, 불꽃놀이 등 부대행사

○ 도림천 벽화 그리기

- 기획 : 도림천 모임 / 서울대 미대 학생 30명
- 내용 : 미대 학생들이 밑그림을 그린 후, 자원봉사자들이 채색
- 참여 : 인근중학교 학생들, 주민들 자원봉사

○ 도림천 청소 활동

- 신림여중 미성중학교와 정기적인 청소 및 식재사업
- 참여 : 신림여중 미성중학교 학생들과 학부모 100여명
- 기획 : 신림여중 / 미성중학교 / 도림천 모임
- 내용 :
 - 3월 - 봄맞이 도림천 대청소 및 수생식물 모종 식재
 - 4월 - 7월 : 한달에 한번씩 청소
 - 9월 : 도림천 청소 및 도림천 수질 조사

○ 내가 지키는 도림천 활동

- 하천자연도 평가, 하천청소 활동 진행
- 실내 하천강의 병행
- 하천탐사 지도 제작

○ 도림천 식재

- 주요 지점에 수질 정화 식물 식재
- 참여 : 국제 대학생 자원봉사 연합 50명
- 내용 :
 - 갈대와 물억새 식재
 - 홍수기 이후 활착 여부 조사 및 수질 정화 효과 조사



그림 4. 도림천주민모임 친수활동 (출처;www.dorimchun.org)

3) 환경을 사랑하는 중랑천 사람들

하천 오염으로 인식되었던 중랑천을 살리고자 결성된 단체로서, 어렸을 적 우리의 소중한 기억처럼 우리의 아이들이 중랑천에서 먹을 감으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중랑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식생조사, 오염지도 제작, 지속적인 수질조사, 오염원 색출, 고발 등 오염방지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서,

- 대보름 민속놀이 ; 쥐불놀이, 깡통 돌리기, 달집 태우기 등 도심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잃어버린 우리의 지혜로운 민속놀이를 재현하고 있다. 해마다 대보름이면 중랑천에서 대보름 민속놀이를 진행한다.
- 초록생명 불어넣기 ; 중랑천에 수생식물, 수변식물을 식재하는 활동. 최근 갯버들 1000주, 키버들 1000주, 달뿌리풀 1000본, 부처꽃 1500본, 수수꽃다리 250주, 산수유 250주, 싸리 2500개를 시민의 손으로 식재하였다.
- 중랑천 지킴이단 ; 환경을 사랑하는 중학생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중랑천 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다. 중랑천에 살고 있는 생물, 식물들을 조사하고 중랑천 수질 모니터링을 한다.
- 중랑천 대청소 및 인간 띠잇기 대회 ; 노원지역에 사는 시민 3000여명과 함께 중랑천 노원구 전구간 청소를 진행한다. 청소를 마친 후 모두 중랑천으로 들어가 손에 손을 잡고 띠를 잇고 중랑천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선언문을 낭독

하면서, 시민의 관심과 사랑으로 점점 되살아나는 중랑천이 되길 희망한다.

- 그림 그리기 대회 ; 푸른 중랑천 만들기 그림 그리기 대회. 미래 세대의 주인인 아이들이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중랑천의 모습을 그린다. 유치부, 초등학생, 중학생이 참가하여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중랑천의 모습을 한껏 그려 보는 자리이다.



그림 5. 중랑천사람들 친수활동 (출처;www.jr1000.or.kr)

3. 친수 활동의 한계점

현재 하천살리기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민간단체는 지역 하천에 기반을 둔 풀뿌리 단체들이다. 이들 단체는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 어렵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재정이 열악한 이유는 정부의 지원이 제도화,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도 하지만, 아직은 우리 사회가 민간단체에게 선뜻 후원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천 관련 각계의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분야에 활발히 참여하지 않은 점도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언론에 발표된 활동의 한계점을 보여주는 사례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인천일보, 2007).

인천하천 살리기 추진단과 인천시에 따르면 자연 생태형 하천복원 사업 과정에 있어 각계 전문가, 시민 의견 수렴 통로인 추진단 사무국이 아직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하천 살리기 추진단 집행부 격인 사무국은 앞으로 민·관 의견 수렴, 시민 홍보 등 하천 살리기 운동의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자연 생태형 하천복원 사업 설계를 직접 관할·관리하는 인천시가 하천 하수과와 수질보전과 직원 파견, 사무국 운영비 책정 등에 능장을 부리고 있다는 것. 사무국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각 단체 등 민간에서 파견 나온 사무국 구성원에 대한 임금 마련, 컴퓨터, 팩스 등 사무기기 보충 등 구체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무국 운영비 2억3천만원은 6월에 있을 인천시의회 추경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라 최소 한 달 동안은 재정적 지원 없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판이다.

이들 한계점을 좀더 자세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열악하다.

민간단체가 활동을 전개하려면 재정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무실 임대와 관리, 직원 인건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들 재정은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고 민간단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는 없다. 결국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뒷받침해 주어야 하는데, 현실상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열악한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충분치 못

하다.

2) 회비 수입에 어려움이 많다.

민간단체의 회비로는 효율적인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 특히 지역에 기반을 둔 민간단체의 경우 회원이 충분치 못하며, 따라서 재정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 기부문화가 정착되어 민간단체에도 많은 회원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

3) 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지역에 기반을 둔 민간단체의 경우 후원회 설립이 어렵다. 이는 민간단체의 재정이 열악하여 하천살리기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활동 추진이 미약하고 따라서 민간단체의 일반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후원도 미약하고, 따라서 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4)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민간단체는 그 활동이 성격상 공공성을 지니므로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공공성을 지닌 수익사업이라 할지라도 이는 곧바로 지탄의 대상이 된다.

5) 인력 수급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민간단체는 재정이 취약하므로 안정적인 직장이 못된다. 또한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시각이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노년층의 경우 활발한 활동을 하는데 신체적인 제약이 따르고, 결혼을 앞둔 젊은층의 경우 사회의 시각이 부정적이어서 결혼하는데도 불리한 실정이다. 결국 민간단체에 근무하는 활동가들은 재정상 또는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옮기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하천활동 관련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민간단체에서 활동하여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명성이 있는 중앙단체에 주로 관심이 있고 지역에 기반을 둔 민간단체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활용이 충분치 못하다.

6) 전문적인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

앞서 언급한 전문가의 활용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민간단체는 전문적인 대안제시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민간단체 활동가들도 전문성이 취약하다. 특히 지역 민간단체의 경우, 부족한 활동가들이 많은 활동을 담당하다 보니 전문성을 갖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7) 지역의 이익을 우선하는 이기주의 성향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지역 민간단체의 경우, 민간단체가 속한 지역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해당 지역을 우선하다 보니, 인근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생각하지 못하거나, 생각하더라도 고려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4. 환경친화적인 친수활동의 바람직한 방향

환경친화적인 친수활동의 목표는 맑고 깨끗한 물이 안전하게 흐르는 하천, 푸르름이 가득하고 생물들이 다양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하천, 사람들의 애정과 관심이 담긴 하천, 경관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하천으로의 변화일 것이다.

이 같은 바람직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강살리기 운동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1) 환경친화적인 친수활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 단체의 친수활동이 각 지역마다 열심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 프로그램은 비슷비슷하고, 각 하천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 이처럼 큰 진전 없이 매년 활동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여러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각 단체들이 노력해서 쌓아올린 하천활동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지 못하는 점과 상근 활

동가가 적은 지역의 경우 다양한 활동 영역을 포괄하다보니 하천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기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급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친화적인 친수활동은 각 지역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운동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연구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각 단체들은 하천의 고유 특성에 적합한 활동의 방향과 목표를 단계별로 정하고, 구체적인 전략프로그램 연구에 집중함으로써, 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민간단체가 환경친화적인 친수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임대와 관리, 직원 인건비가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재정 확보가 시급하다. 회원 증대나 후원회의 활성화가 아직은 여건상 불충분하므로, 재정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한다.

3)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앞으로의 활동은 반대 중심의 운동에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효율적인 활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근 활동가의 전문성 제고, 전문가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4) 지역 이기주의 성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 민간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다 보니, 인근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천은 지역보다는 수계별로 관리하는 것이 당연한 만큼 민간단체의 활동도 이제는 수계를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5) 민간단체간 네트워크의 결성이 필요하다.

친수활동은 지역이 아닌 수계별로 추진되어야 하며, 따라서 수계별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활동의 전체적인 협력과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하천살리기 네트워크를

통해 친수활동의 모델을 정립해 가고, 그 방향을 공유하는 것 또한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

6) 유역협의체의 구성이 요구된다.

친수활동은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정부와 일반 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모여서 협의함으로써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유역협의체의 결성이 중요하다. 현재 유역협의체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인천 하천살리기추진단, 부산 하천살리기운동본부 등이 있다. 유역협의체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인천 하천살리기 추진단의 경우 하천살리기 운동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지자체의 장이 바뀌더라도 협의체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명문화하였다. 앞으로 유역협의체의 결성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유역협의체의 운영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

5. 맺음말

하천살리기를 포함한 환경친화적인 친수활동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에서는 하천살리기 사업 진행과 더불어 각종 개발사업도 실시하고 있는데, 개발 과정에서 환경 훼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민간단체의 환경친화적인 친수활동도 이제는 해당 지역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이기주의 차원에서 벗어나,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된 차원으로 한 단계 높여야 할 것이다.

민간단체의 활동은 유역별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활동의 전체적인 협력과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강살리기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의 모델을 정립해가고, 그 방향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기관과 지역주민, 민간단체와의 partnership에 의한 유역협의체의 활동 역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단체의 친수활동은 각 민간단체가 속한 지역 하천의 특성에 적합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연구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각 단체들은 활동의 방향과 목표를 단계별로 정하고, 구체적인 전략프로그램 연구에 집중함으로써 활동을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지역주의나 이기심 등을 추구하기보다는 보다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자연친화적인 친수활동을 통해 후손에게 물려줄 우리의 아름다운 하천을 보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 강살리기네트워크 강의날 대회 조직위원회 (2005), 제4회 강의날 대회 발표집.
- 강살리기네트워크 강의날 대회 조직위원회 (2006), 제5회 강의날 대회 발표집.
- 건설교통부 (2001), 자연 친화적 하천관리지침.
- 건설교통부 (2004), 하천관리의 획기적 전환 (살아 숨쉬는 강 만들기), 보도자료.
-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학회 (2000), 하천설계기준.
- 김선희 (2000), "상하류지역 물분쟁 극복과 공동협력 방안" 「물 위기의 시대, 우리나라 수자원정책」. 환경정의시민연대.
- 부산 강포럼 (2004), 2004 부산 강포럼 조직위원회.
- 염형철 (2003), 하천 살리기 운동의 과제와 전망.
-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2003), "제3회 세계 물 포럼 자료집"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3), "지속가능한 물관리 실현을 위한 물관리 체제 개선 방안"
- 최은정 (2002), 강살리기 운동 현황과 네트워크의 필요성, 제1회 강의날 대회 발표집, 강의날대회 조직위원회, pp.21-27.
- 건강한 도림천을 만드는 주민 모임 <http://www.dorimchun.org/>
- 분당환경 시민의 모임 <http://www.bandior.kr/>

인천일보 (2007) <http://www.itimes.co.kr/>

자연형 하천 길라잡이, <http://www.river.re.kr/>

하천사랑운동, <http://www.newriver.or.kr/>

환경부 홈페이지 환경정보서비스 시스템, <http://>

www.me.go.kr/

환경을 사랑하는 중랑천 사람들 [http://www.](http://www.jr1000.or.kr/)

[jr1000.or.kr/](http://www.jr1000.or.kr/)

환경정의 <http://www.eco.or.kr/> 